

지역인재 2982명 선발… 수도권 상위권 지원 선택지 축소

〈지방 의·치·한·수·약대〉

‘역대 최대’ 5년 전보다 2.1배 ↑
호남권 956명 선발 규모 가장 커
의대 지역의사제 첫 도입도 관건

2027학년도 지방권 의·치·한·수·약대가 전체 모집인원의 60% 이상을 지역 학생으로 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학생 선발 인원은 2982명으로 5년 전보다 2배 이상 늘어난 역대 최대 규모다. 지방 학생들의 의·치·한·수·약대 진학 기회가 넓어진 반면 수도권 최상위권 학생들은 지방 대학까지 지원 선택지가 좁아지면서 올해 수시에서 치열한 눈치작전이 예상된다.

30일 종로학원에 따르면 2027학년도 전국 지방권 74개 의·치·한·수·약대의 지역 학생 선발 인원은 2982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2학년도 1446명의 2.1배 수준이다.

지방권의 의·치·한·수·약대 전체 모집인원에서 지역학생 선발이 차지하는 비율도 61.3%까지 높아졌다. 약대의 학부 전환이



서울 시내 의과대학 모습.

/뉴시스

완료된 2022학년도 이후 가장 많은 인원이다.

계열별로도 모든 의·치·한·수·약에서 지역학생 선발 규모가 5년 전보다 증가했다.

의대가 2022학년도 766명에서 2027학년도 1729명으로 963명 늘어 증가 폭이 가장 컸다. 같은 기간 치대는 134명에서 296

명, 한의대는 136명에서 294명, 수의대는 89명에서 155명으로 늘었다. 약대 역시 321명에서 508명으로 증가했다. 지역학생 선발 비율은 치대와 약대를 제외한 의대·한의대·수의대에서 2022학년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권역별 지역학생 선발 규모는 호남권이 956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부울경 633

명, 충청권 574명, 대구·경북권 532명, 강원권 206명, 제주권 81명 순이다. 선발 비율도 호남권이 69.3%로 가장 높았고, 부울경 67.7%, 대구·경북 58.8%, 제주 58.7%, 충청 58.2%, 강원 39.6% 순이었다.

해당 지역 일반고 수를 기준으로 단순 환산한 학교당 의·치·한·수·약 지역학생 선발 규모도 5년 전보다 크게 늘었다. 호남권이 일반고 한 곳당 평균 4.2명으로 가장 많았고 제주권 3.7명, 충청권 3.1명, 대구·경북권 2.8명, 강원권 2.4명, 부울경권 2.2명 순이었다.

지역 학생들은 지역인재전형과 함께 수도권 대학에도 지원할 수 있어 실제 학교별 의·치·한·수·약 합격 인원은 단순 환산 규모보다 많아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2027학년도에는 전국 의·치·한·수·약대 109개교 가운데 74개교가 지방권에 위치해 있어 지역학생 선발 확대가 최상위권 수험생의 지원 구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의대 지역의사제 전형이 처음 도입되는

것도 변수다. 지방권 의대의 지역학생 선발 확대와 지역의사제 도입에 따른 지원자 이동이 의대뿐 아니라 치대·한의대·수의대·약대의 지원 및 합격선에도 연쇄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이사는 “지방권 학생들은 지역학생 선발 규모가 크게 늘어나 의·치·한·수·약대 합격 가능성이 높아진 반면 수도권 학생들은 내신 최상위권을 확보하고도 대학 결정과 합격선 예측이 어려워진 상황”이라며 “수도권과 지방권에 따라 최상위권 학생들의 대학 선택 전략이 크게 달라질 수 있어 올해 수시에서 상위권 학생들의 치열한 눈치작전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2027학년도 수시모집 원서접수는 오는 9월 7일부터 시작된다. 수험생들은 9월 2일 치러지는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 채점 결과 등을 토대로 최종 지원 대학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서울 교육취약학생 문화예술 격차 줄인다

서울교육청, ‘사제동행 공연봄날’
내달부터 12월까지 총 6회 운영
서울희망교실·공연봄날 연계

서울지역 교육취약학생들이 선생님과 함께 무료로 문화예술 공연을 관람하는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서울시 문화본부와 협력해 서울희망교실 운영 교원과 학생이 함께 문화예술을 즐기는 ‘사제동행 공연봄날’을 9월부터 본격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사제동행 공연봄날은 서울시교육청의 교육복지 특화사업인 ‘서울희망교실’과 서울시의 학생 문화예술 공연 관람 지원사업인 ‘공연봄날’을 연계한 사업이다.

서울희망교실은 교원과 학생 간 사제

멘토링을 통해 교육취약학생의 맞춤형 성장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공연봄날은 학생들이 다양한 문화예술 공연을 관람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울시 사업이다.

이번 사업은 오는 9월부터 12월까지 총 6회에 걸쳐 운영된다. ▲1회차: 9월 11일 오후 7시30분 ‘캔터빌의 유령’ (엠제이플래닛·390명) ▲2회차: 10월 14일 오후 5시30분 ‘시간을 파는 상점’ (극단 파랑·140명) ▲3회차: 10월 15일 오후 5시30분 ‘시간을 파는 상점’ (극단 파랑·140명) ▲4회차: 10월 21일 오후 5시30분 ‘내일은 내일에게’ (극단 파랑·140명) ▲5회차: 10월 22일 오후 5시30분 ‘내일은 내일에게’ (극단 파랑·140명) ▲6회차: 12월 1일 오후 7시30분 뮤지컬 ‘앤ANNE’ (극단 결판·540

명) 등이다. 특히 1회차와 6회차는 서울시 공연봄날과 연계해 좌석을 지원받는 특별 공연으로 진행되고, 나머지 4회는 자체 운영한다.

서울희망교실을 운영하는 교원과 학생 약 1450명이 무료로 공연을 관람할 예정이다.

서울시교육청과 서울시 문화본부는 사업 기획부터 운영까지 협력 체계를 구축해 교육취약학생을 위한 공적 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사업을 통해 교육취약학생의 문화 격차를 해소하는 동시에 사제 간 상호 존중과 신뢰에 기반한 따뜻한 학교 문화 조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현진 기자

서울시, 전세사기 피해자 수선비 지원

누수·난방·전기·창호 등 긴급수선 대상

임대인이 잠적해 집 안 누수나 보일러 고장까지 스스로 감당해야 했던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들이 앞으로는 서울시로부터 최대 500만원의 긴급 수선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30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5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 권한이 확대됨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주택 안전관리 지원 범위를 세대 내부까지 확대한다.

그동안 임대인과 연락이 끊긴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은 주택 내부에 누수나 보일러 고장 등이 발생해도 기본적인 유지보수를 받기 어려웠다.

지원 대상 공사는 누수·방수, 단열, 난방·배관, 전기, 창호 등 안전 확보와 피해 복구가 시급한 공사다. 세대당 최대 500만

원 한도로 실제 공사비를 지원한다.

안전·피해복구와 관계없는 인테리어성 공사나 인허가가 필요한 구조 변경 공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공사의 시급성은 전문가 현장점검을 통해 판단한다.

세대 내부 수선은 해당 세대 임차인이 개별적으로 신청할 수 있다. 공공부분 유지보수와 안전관리 지원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전체 세대의 3분의 1 이상인 주택의 대표가 신청해야 한다.

신청은 서울시 주거복지과 이메일이나 방문·우편으로 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과 신청서식은 서울주거포털과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서울시 전월세 종합지원센터에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

명도준 서울시 주택실장은 “임대인이 잠적한 피해주택의 주거 안전 사각지대를 줄이고 전세사기 피해자의 일상 회복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현진 기자

경기관광공사, ‘캠핑카 DMZ’로 외국 관광객 공략

경기북부 체류관광 본격화

경기관광공사가 캠핑카와 평화누리캠핑장, DMZ 관광자원을 결합한 외국인 개별관광객 대상 체류형 관광상품 개발에 나선다.

경기관광공사는 지난 28일 파주 평화누리캠핑장에서 캠핑카 관광상품 전문기업(썬미니캠핑앤모빌리티)과 ‘외국인 개별관광객 DMZ 체류관광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2025년 기준 방한 외국인의 80.1%를 차지하는 개별여행객 수요를 경기북부 관광으로 유도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존 단체관광 중심의 방식에서 벗어



평화누리 캠핑장 전경

/경기관광공사

나 개별관광객의 여행 특성을 반영한 체류형 관광 모델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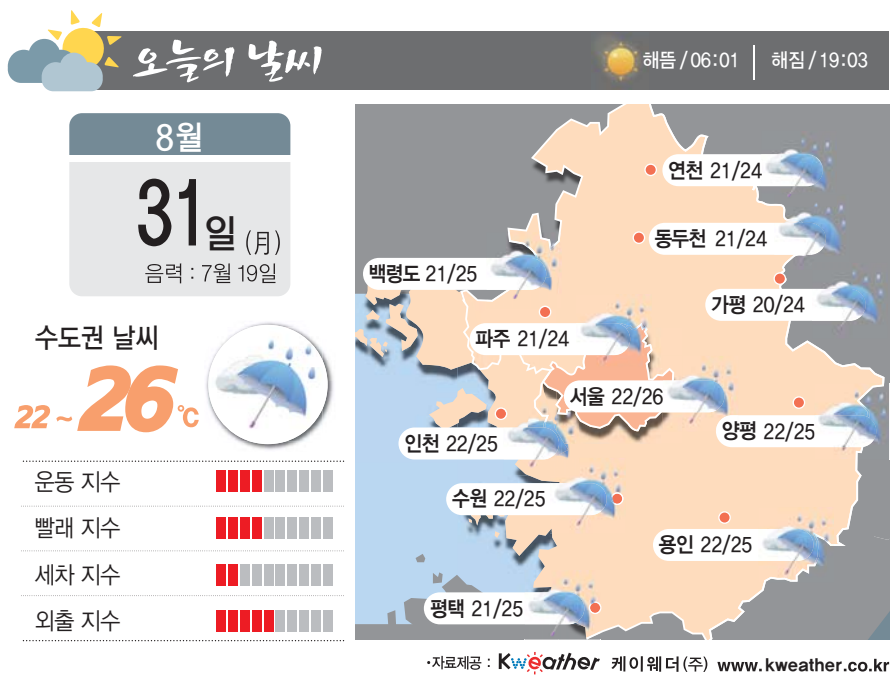
개발 상품은 외국인 관광객이 캠핑카를 이용해 평화누리캠핑장에 숙박하면서 DMZ와 경기북부 관광지를 자유롭게 둘러보는 방식이다. 평화누리캠핑장 1박과 DMZ 관광지 1곳 이상 방문을 기본으로 캠

핑카 렌트와 2박 숙박을 결합한 패키지, 여행 일정에 따라 숙박과 관광지를 선택할 수 있는 옵션형 상품 등을 운영할 예정이다.

협약 기업인 미니캠핑앤모빌리티는 구미주와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대만, 홍콩 등 주요 해외시장에 캠핑카 관광상품을 선보이고 있으며, 글로벌 OTA 약 60개 채널을 통해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경기관광공사가 2024년 4월부터 직영하는 평화누리캠핑장은 국내 내비게이션 목적지 검색 기준 캠핑장 분야 1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지난해 약 1,600명의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했다.

/경기=김대의 기자 dykimi@



▲트럼프 “650억배럴 매장 베네수엘라 원유, 미국이 통제권 확보”
▲네팔·중국 홍수 사망자 750명, 3044명 실종 집계…‘2차 홍수’도 경계
/사진 뉴시스

▲中 “네팔 국경 자연댐 안정적 단계 돌입…전체 붕괴 가능성은 낮아”
▲이란, 미국에 중동사태 종전 합의 이행 촉구…“침략엔 단호히 맞설 것”

▲워시 연준 의장, 잭슨홀서 내달 금리 인상 시사…“우리에게 할 일 있어”
▲우크라이나 원전 전력 위기…지역 원자력 안전에 ‘빨간 불’